



嶺南人物考
七

| | |
|-------|----------------|
| 奎章閣圖書 | |
| 部別 | 分類記號 <i>KE</i> |
| | 圖書番號 1741 |
| | 一部冊數 10 |
| | 內別番號 7 |
| 서울대학교 | |

共十

朝鮮初期부터 正祖年間에 이르는 동안에 嶺南各處에서 배출된 學者·政治家·文學家 등의 人物傳을 소개, 輯錄한 책으로 1798년 (正祖 22) 正祖의 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각 人物의 行狀이나 言行錄·墓誌·神道碑文·祭文 등의 遺事를 토대로 抄錄·評論한 것이며, 지방별로 당시 名士·文臣들 1-3명씩 분담, 편찬하여 모아놓은 것이다.

現奎章閣本은 筆寫正本으로서 각 편찬자들이 正祖에게 製進한 것을 合錄, 備置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文獻備考>>나 <<擒文院書目>>에 의하면 총 17卷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嶺南各處 중 慶尙南道 지방이 대부분 빠져 있고 慶尙北道에서도 인물이 많기로 이름난 善山·醴泉·仁同·高靈등지가 누락된 것을 미루어 보면 現傳하는 10卷은 零本이 아닌가 추측된다.

傳言에 따르면 韓末 伊藤博文이 借去한채 분실하였다는 一說(高大, <<韓國圖書解題>>)도 있다.

各卷別 편찬자의 이름이 卷頭(貼紙)에 적혀있고 冊마다 內閣印이 있다.

한편 奎章閣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茶山 丁若鏞이 本書編撰者中 한사람이있던 그의 仲兄 若銓이 보여 준 草稿를 보고 지었다는 序文이 <<與猶堂全書>>에 실려있다.

卷別 편찬자와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蔡弘遠 編); 安東篇(一)으로 金濟·金自粹이하 金字顛에 이르는 46명.

권2(丁若銓 編); 安東篇(二)으로 柳成龍 이하 金佺에 이르는 36명.

권3(李儒修·韓致應 編); 安東篇(三)으로 柳元之 이하 裴相說에 이르는 56명.

권4(睦萬中·沈奎魯 編); 尙州篇(一)으로 黃喜 이하 鄭道應에 이르는 64명.

권5(尹弼秉·李鼎運 編); 尙州篇(二)에 金楷 이하 金熙普에 이르는 13명과, 禮安篇에 琴以詠 이하 李東俊에 이르는 36명, 軍威篇에 玉沽 등 9명, 英陽의 趙德隣.

권6(未詳: 落張); 慶州篇에 徐愈 등 33명, 密陽篇에 李行 등 19명, 新寧篇에 權應銖 등 3명.

권7(李○薰·洪命周 編); 星州篇에 李崇仁 등 35명, 義城篇에 金光粹 등 20명.

권8(蔡弘履·權應範·沈奎魯 編); 晋州篇에 河演 등 42명, 咸陽篇에 趙承肅 등 10명, 慈仁篇에 李陽昭 등 4명.

권9(李○珩·沈達漢 篇); 永川篇에 李敢 등 30명, 大邱篇에 楊熙止 등 25명.

권10(李址永·姜浚欽 編); 榮川篇에 鄭陟 등 38명, 龍宮篇에 安俊 등 14명, 河陽의 許稠와 金是聲, 眞寶의 申址와 申禮勇이 수록되어 있다.

嶺南의 人脈이나 人物研究에 귀중한 사전적 자료이다.

姜周鎮譯의 <<嶺南人物考>>(서울大出版部, 1967)가 있다.

李光俊

李光俊字俊秀號鶴洞永川人 中宗辛卯生 明
宗壬戌文科歷學諭教授府使叅議至觀察使光海
己酉卒

公甫成童屹屹膽勇始業武既而墮馬傷臂遂鐫
刻讀書數年文詞拔萃遊太學大為儕類推重
公素性剛方不為媒進訃少與沈叅判義謙友善
又釋褐同榜沈方為銓即將擬公清顯而公以其
椒房近戚絕不與交
壬辰江陵府有螺蟻蔽雲之異識者認為兵象朝

議將擇才望以公應公之官未數月倭大舉入寇
賊將吉成東略地列邑尾解倭差人傳檄至府公
即斬以徇領兵據險賊又突至終日力戰多所獲
事聞特進秩

中和新經倭創 朝廷擇公為守公至則解宇灰
燼滿目丘墟公躬相畚鍤先作營窟烏駮毆竄之
民稍稍歸集又大開屯田具農器與民每親至表
畷課其耕耨逮秋熟收穀屢千斛設官舍創學宮
練卒伍繕兵械一似平時而民愛戴如父母立石
頌惠及聞公均聚哭碑下設奠遙祭至今百餘年

申侂

申侂字懼之鵝洲人 明宗庚戌生官教授光海甲寅卒

辛亥疏論鄭仁弘誣賢之罪曰仁弘山林養望自許太過出一言語思易天下而仰恃聖眷以為我為此言則天聽可回天聽既回則我之積憾可以快報饒筆騁辭惑亂視聽其流之弊將至於滅民彘害天理自是見時象乖亂杜門守靜日以經史

自悞

崔明撰
基誌

申之悌

申之悌字順夫號梧峯鵝洲人 明宗壬戌生 宣
祖己丑文科歷正言文學北評事府使至承旨 仁
祖甲子卒

癸丑拜昌原府使有獷賊據島出入焚掠隣邑莫
能制公設方畧悉捕之事聞增秩通政

公天姿醇粹儀度秀偉西厓柳先生嘗稱為第一
人物事繼母氏盡孝當其病革語不可了猶亟
問親瘠既絕乃已愛君憂國出於至性嘗聞廢主
出置之事為之泫然流涕

申之孝

申之孝字達夫號鷹巖鵝州人 宣祖壬辰避亂遇賊死

壬辰倭寇搶攘時公弟梧峯之悌在宣城縣公奉老在家避巖穴間倭踵而至劒公左肩血流淋漓公臨絕嚙葛為筆血書紬衫寄梧峯曰吾之巖身不密不孝孰甚焉老親則有諸弟奉侍君既委身王室有職守當臨亂授命而矢石赴死之日恐無以尋屍幸於足掌書宣城二字俾識之云

任必大撰碣

申適道

申適道字士立號虎溪鵝洲人 宣祖甲戌生官察

訪 仁祖癸卯卒

嘗任水溪院長時嫁禍士林者題名於尋院錄公
削去之鄭造為方伯督囚院任公凝然不動從容
就囚辭理不屈雖以造之凶暴無以罪之

丙子以義兵將灑泣誓衆遂以孤軍星夜馳赴
行在仍獻兵糧拜 健元陵叅奉謝 恩而退

朝拱
墓誌

洪萬

申悅道

申悅道字進甫號懶齋鵝洲人 宣祖己丑生丙午
進士 仁祖甲子文科歷正言至牧使 孝宗己亥
卒

九歲進拜旅軒先生先生竒愛之教以正坐公資
稟粹然無一點滯吝意思無一毫粗厲氣象
其立朝恬靜自守不肯苟同而詭隨以至治郡以
教化為要興學為先陳疏章眷眷端本典學之說
其在南漢園中人皆恇恇苟冀和好公以死自許
製中帶以備自處修家信以付蒼頭從容自得如

申弘望

申弘望字望久號孤松鵝洲人承旨之悌子 宣祖
庚子生 仁祖丁卯進士以薦授叅奉不起已卯文
科歷注書正言至司藝

公在憲府有李時樸居官不廉持喪不謹人言喧
藉持平李溫菴啓旋被劾去時樸為都承旨陳疏
自明引先賢為證聞者憤惋公將舉劾同列止之
曰君朝夕且瀛選公不聽遂獨啓之於是諫院劾
罷公尋竄碧潼

已亥除豐基守先是邑宰連歿于官人以為不祥

申達道

申達道字亨甫號晚悟藝洲人光海丙子生庚戌進士仁祖癸亥文科魁官至修撰錄寧社勲卒未卒壬辰以後寇盜充斥首尾七八年經生學子莫不解體無意親書冊公益發憤自厲手不釋卷而洛建諸書尤反復有契發為文章汪洋放肆渾渾無涯淡

為正言上十條疏曰用人才曰擇守令曰收人心曰開言路曰決壅蔽曰赦罪過曰省冗官曰厚風俗曰均貢賦曰修軍政末復言修省之實上嘉

納焉

丁卯秋來侵 上召大臣諸臣議有一勲宰首發
韋蜀之議公進言曰願 殿下駐節坡州奮揚威
武以示先人奪人之氣不宜先自推縮以示弱
上曰當與廟堂商度竟不用其計及扈 駕江都
庭議欲講和公抗疏曰 殿下畏賊如虎無意討
賊不顧義理之當否惟恐和好之不成如此尚可
以為國乎因伸救司諫尹煌又與尹煌論崔鳴吉
主和誤國之罪辭意峻正無所忌諱朝著為之踈
然

時毛文龍為檄島守將聲言朝鮮陰通吐虜將欲
襲取檄島傳播遠通事機叵測 朝廷議遣使曉
諭難其人公遂膺是選承命入毛營乃謂朝鮮事
大國如子事父不宜有此辭情懇款毛將感悟疑
盡釋於是刷還本國人擄在島中數千人
在諫院有臺諫論勳臣驕橫不法狀 上怒甚有
嚴治臺諫之 命公乃挺身獨啓曰臺諫常持公
議為人主耳目公議所在臺諫安得不言尹煌之
啓趙綱之疏皆出公議非構誣人之論也且廟堂
歧而為二不知協和朝廷而只要和好胡虜不知

攻擊胡虜而惟務排擊臺諫夷狄侵凌甲兵不多
非今日之憂腹心受病將致危亡之禍此誠今日
之憂也於是左相申欽右相吳允謙以其有廟堂
臺閣之語連章辭避 上怒罷公職大臣三司文
章陳劄還收成 命於是公直聲振朝野
庚午拜掌令前大司憲鄭蘊因求言請復仁城官
爵三司交章彈劾或請置極典公因求言遂發論
傳啓公論寤之時玉堂以請寢 元宗祔廟事忤
上意并 命致重究公執不可遂遽為軍資正

道撰
行狀

申悅

